

**금주 법구**  
 정(情)이 발전하게 되면  
 모든 사(私)가 일어나고,  
 상품(善品)이 발전하게 되면  
 공의(公義)가 곧 일어난다.  
 - 회당 대종사 -

# 현대불교

통사하는 불교 시사사언 02)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실상선원 041)734-2680  
 대전 본산시 인산면 송정리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12월 5일 수요일 (주간) 제 346 호

##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 모자보호원 입소와 개종

서울 구로구에 사는 박여래(보살비)는 최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모자보호원에 입소를 허가받았다. 지난 여름 신정서를 냈던 박 보살은 모자보호원 입소 경쟁이 워낙 치열한지라 될 듯이 기뻐했다. 3년 전 사업실패로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어린 두 남매와 함께 삶을 구걸하다시피 했던 악몽 같은 현실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입



소절자를 받기 위해 찾아간 모자보호원에서 박 보살이 받아 든 것은 '개종'이라는 강요성 입력이었다. 모자 보호원 원장은 그곳에 입소한 모든 가구가 기독교인이며, 불교를 믿었던 가구도 개종을 해서 지금은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고 했다. 종교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비웃기까지 했다. 박 보살은 그곳에서 뒤처나왔다. 하지만 휘둘러 득실거리려는 화장실, 찬바람이 땀방울 부는 부엌의 지하 단칸방으로 돌아갈 엄두가 나질 않았다. 깨끗한 곳에서 살게 됐다고 좋아했던 아이들

을 생각하니 눈물이 흘렀다. 박 보살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입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어려서부터 믿어온 불교를 버릴 수는 없었다. 아무리 어렵게 살더라도 종교를 바꾸는 것은 불자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밀려오는 허탈감은 어쩔 수 없었다. '도대체 불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기독교인들이 사회 곳곳에서 자신들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데 반해 불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불교계가 원망스러웠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각 종교단체 및 사회단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모자복지 시설은 모자 보호원 39곳을 비롯해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등 모두 60여 곳에 이른다. 이중 천주교와 개신교가 운영하는 곳은 30여 곳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계가 운영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불교계 복지시설은 대략 150여 곳이 넘는다. 다른 종교에 비하면 적은 수치지만, 최근까지 시설이 계속해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복지시설은 몇 곳에 불과하다. 사회 구성구석까지 손길을 뻗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려운 불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종단과 불자들의 자비가 필요한 때다.  
 한명우(취재 1부 차장)

## “수행 아우르는 ‘승가학’ 정립”

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주장... “인문학적 불교학 반성 필요”

서구 인문학에 바탕을 두고 있는 현재의 불교학을 수행을 포괄하는 학문체계인 '승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기존 불교학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승가학'은 지금까지의 불교학 연구 방법론을 폭넓게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계에 적지않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속세의 온갖 욕망을 버리고 깨달음에 이르려고 하는 파란눈의 수행자들이 화두를 들고 참선에 몰입해 있다. 사진은 11월 29일 동인거 결계에 들어간 본산 무상사 국제선원 정진대중들. 사진=고영배 기자

### 전국 선방 동안거 2천여 스님 결제

전국 선방에서 수행의 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다.

송광사 수덕사 백암사 해인사 통도사 선암사 등 6곳의 총림과 문경 봉암사, 외국인 스님 선방 본산 무상사, 해외사찰 하와이 대원사 태평선원 등 80여 선방에 1천7백여 수행자들이 29일 동안거 결제에 들어갔다. 이중 비구선방은 50여 곳, 비구니 선방 30여 곳이다. 또 소수가 정진중이거나 개별적으로 안거에 참여하고 있는 미집계 사찰까지 합하면 1백여 선원, 정진대중은 총 2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a.com

'교화학(敎化學)'으로 구성돼 있다. 김성철 교수(동국대 불교학도) 이날 세미나에서 '인문학적 불교학 연구'로 인해 신앙으로서의 불교학 쇠퇴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앙으로서의 불교학'과 '인문학적 불교학'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진홍 교수(서울대 종교학)는 "상당히 의미있는 시도며, 신앙 자체를 학문으로 포괄해야 한다는데 동감한다"고 평가했고, 차차석 박사(동국대 불교학 강사)는 "불교학과 수행(修行)이 재각기 따르므로인 현재로서는 신앙으로서의 불교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체계

### 7대종교 지도자들 남북관계 진전 호소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을 비롯한 개신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원불교, 민족종교 등 7대 종교지도자들은 11월 30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의 남북문제에 관한 정쟁 중단 등을 호소했다. 7대종교 대표들은 "최근 장관급 회담이 무산됨으로써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마저 취소되고 있다"며 △정 치권의 정쟁 중단 △민간교류 활성화 △남북당국 적극 지원 △북한의 남북대화 재개 △미국과 북한 간 대화 등 4개항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7대종교 지도자들은 11월 24일 청와대오찬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통일문제가 정략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한 바 있다. 김원우 기자

## 2002 청소년 영어캠프

현대불교신문사는 불교계 최초로 국제화시대에 필수적인 영어 실력의 기초를 다지고 우리 민족 정서의 원형을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청소년 영어캠프를 개최합니다. 청소년 미래에 뜻있는 많은 분들과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프로그램 일정  
 \*교육내용  
 캐나다인 선생님과 영어-한국어 2중 언어 보조교사가 헌반에 함께하는 수업 헌반에 15명의 소수정원제 수업 \*집중적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발음교육 다양한 야외활동(무주 리조트 스키 타기 및 문화체험(경주 study tour) 학습 캠프 기간 부대비용 홈페이지 www.buddhapa.com 통한 학생활동상황 전달 캠프후 3개월간 E-mail을 통한 영어학습 제공  
 \*기간: 2002년 1월14일(월)-1월27일(화) 2주간  
 \*장소: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무주리조트  
 \*대상 및 인원: 10세부터 15세까지 초, 중등부 각 4명 선착순 마감  
 \*참가비: 1,080,000원(30만원은 신청서 납부)  
 \*제출서류: 참가신청서와 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  
 \*접수문의: 전화 02722-3366 팩스 02738-7675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buddhapa.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최 현대불교신문사 \*주 관 CG Education \*협 찬 일품여행사

## 장군죽비

-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 알릴 자원봉사 연합조직 8일 발족, 한국 불교 세계화, 지금 이곳에서 먼저 이루어. (2면)
- ◇미국 ACTA 세계 최초 배아 복제 성공, 생명윤리 차원의 논쟁이 아니라 '상품'으로서의 인간 정체성을 고민할 때 된 결과? (8면)
- ◇건교부 도로공사 북한산 관동도로 '강행' 현명, 국민의 소리에 거 기울이면 어찌 북한산의 절규를 들을 수 없으랴. (11면)
- ◇논산우체국 전 직원 179명(지역포함) 생명나눔실천회에 '장기기증' 서약, 거룩한 소식을 '몸'으로 전한 참 좋은 사람들. (22면)

### 진각종 해일 총인 추대법회

진각종 제9대 총인 해일 대종사 추대법회가 11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총인원 경내 특 별법석에서 봉행됐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해일 총인의 법통 승수 의식이 종조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는 진각종 전 총인 각해 대종사,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현대종 총무부장 덕수, 홍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과 이인제 민주당 상임고문 등 3천여명이 동참했다. \*관련 기사 2면 이경숙 기자

### 태고종 총무원장에 운산 스님

태고종은 11월 27일 서울 봉원사에서 제83회 정기 중앙총회를 열고 총무원 부원장인 운산 스님을 제22대 총무원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했다. 부원장에는 원불 스님(전 중앙총회 부의장)이 선출됐다. 운산스님은 1960년 대전 대승원에서 용봉스님을 은사로 득도, 동국대 불교대학과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태고종 총무부장, 사무총장, 법인행정원장, 총무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인타뉴스 3면 이경숙 기자

소중한 분이라면  
 이제까지의 남골당에 모시지 마십시오  
 미타원에 모셔 드리십시오

### 남골문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추모사찰, 미타원

미타원은 단순히 유골만을 모시는 곳이 아니라 극락양생하시도록 스님들이 영가를 천도하는 추모사찰형 남골당입니다. 삶을 마친 영가들을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자리 미타원. 이제까지의 남골당과 다릅니다. **故 박정희 대통령 부처와 故 정주영 명예회장의 49재를 직접 모셨고** 국립현충원내 호국지장사 주지이자 삼각산 도선사 회주이신 한국불교의 큰 스승, 해성 큰스님이 미타원의 모든 불자님과 함께 합니다. 미타원에 모셔 마지막 효도를 다하십시오.

■부처님의 자비를 입은 명, 권리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고상시대지선은 성명대군, 광안군 최영 장군 등의 묘지인 묘사찰입니다. 서울에서 30분 거리로 교통 또한 편리합니다.  
 ■대림산입(주)가 책임사공 하는 최고의 사찰 국내에서 최초로 대림산입(주)가 공신과 기술로 책임사공하는 미타원 최초의 미타원이 될지도 모릅니다. (기대합니다.)  
 ■드넓은 자연 속에 펼쳐진 현대 불교건축 예술 전통사찰과 현대적인 미를 조화시킨 외관건축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미타원은 불교미술사적 남골사찰로써 적용이 될 것입니다.  
 ■스님들이 올리는 조식예불과 49재, 다양한 스님들의 보살 소리가 영가를 극락 정토로 인도하고 49재는 법적 높은 스님이 천도함으로써 영가를 위안합니다.

관세음  
 - 화동사거리  
 대림주택문화관

관세음  
 - 인사사거리  
 미타원

미타원 조감도

- 위치: 경기도 고양시 대저산
- 착공일: 2001년 9월 14일
- 준공예정일: 2002년 4월 30일
- 당주: 대림주택문화관 1층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1번지)
- 상담문의: 02)585-2208

국회입법처에 의뢰한 일  
 시공사 **대림산업** **미타원**  
 www.mitawon.or.kr